



11 광령천
학술 탐사

광령천 주변 철기시대 우물에 대하여

이 용 석
제주대학교박물관

1. 머리말

물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예부터 인간은 물을 따라서 하천 일대에 정착하여 촌락을 형성하여 생활하였다. 4계절 내내 풍족한 물을 제공해주는 하천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과거 농경과 정착생활을 하면서 물을 길어오는 수고를 덜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적인 샘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

이러한 우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외에도 공적인 제의공간으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광령천은 제주도 내에서도 수량이 풍부한 영구유수천으로 광령천 일대는 생활에 필요한 식수 및 농경에 적합한 비옥한 토지가 있어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

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 광령천 일대는 신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듯 광령천은 음용수를 얻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령천 하류에 위치한 외도동유적에서는 총 16개의 우물터가 확인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물은 고대취락 연구에 있어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 외도동유적 취락연구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

이글에서는 외도동유적의 우물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유적에서 조사되었던 우물을 중심으로 축조방식과 형태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외도동유적의 우물

외도동 유적은 제주시 외도1동 12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도동유적 I 과 외도동유적 II로 2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 주변에는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외도·광령리유물산포지와 고인돌군이 자리하고 있다.

외도동유적 발굴조사에서는 원형 주거지(변형 송국리형주거지), 우물유구, 수혈유구, 석축유구, 구상유구, 소토유구, 매납유구 등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 파수부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토제방추차, 유리구슬, 곡옥 등이 출토되었다.

2.1. 외도동유적 I, I-2구역 14호 우물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50cm, 잔존단축 124cm, 깊이 89cm이다. 내부에는 할석과 자연석이 뺨뺨하게 채워졌다. 우물 내부에 채워져 있는 적석들은 주로 'V'자 형태로 양쪽에서 경사를 이루면서 맞물려 있다. 벽석은 크고 작은 자연석과 할석, 천석 등으로 축조되었으며,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는 서벽을 보면 대략 5~6단 정도의 벽석이 잔존하고 있다. 벽체축조 시 거의 수직으로 굴착한 후 축조했으며 하부에 다소 좁아지는 상광하협 형태를 축조되었다.

내부퇴적토는 단일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함유된 흑갈색점토층이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 파수부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원판형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2.2. 외도동유적 I, I-2구역 21호 우물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68cm, 단축 154cm, 깊이 100cm이다. 벽체의 상부는 풍화암반토가 할석의 대부분을 덮고 있으며, 단단하게 다져져 있다. 할석을 2~3단으로 뺨뺨하게 쌓아 축조하였다.

내부퇴적토는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약간의 경사를 이루며 여러 개의 토층이 중첩되었으며, 할석이 둘러진 부분은 다량의 잡석과 풍화암반층, 소토와 목탄이 함유된 흑갈색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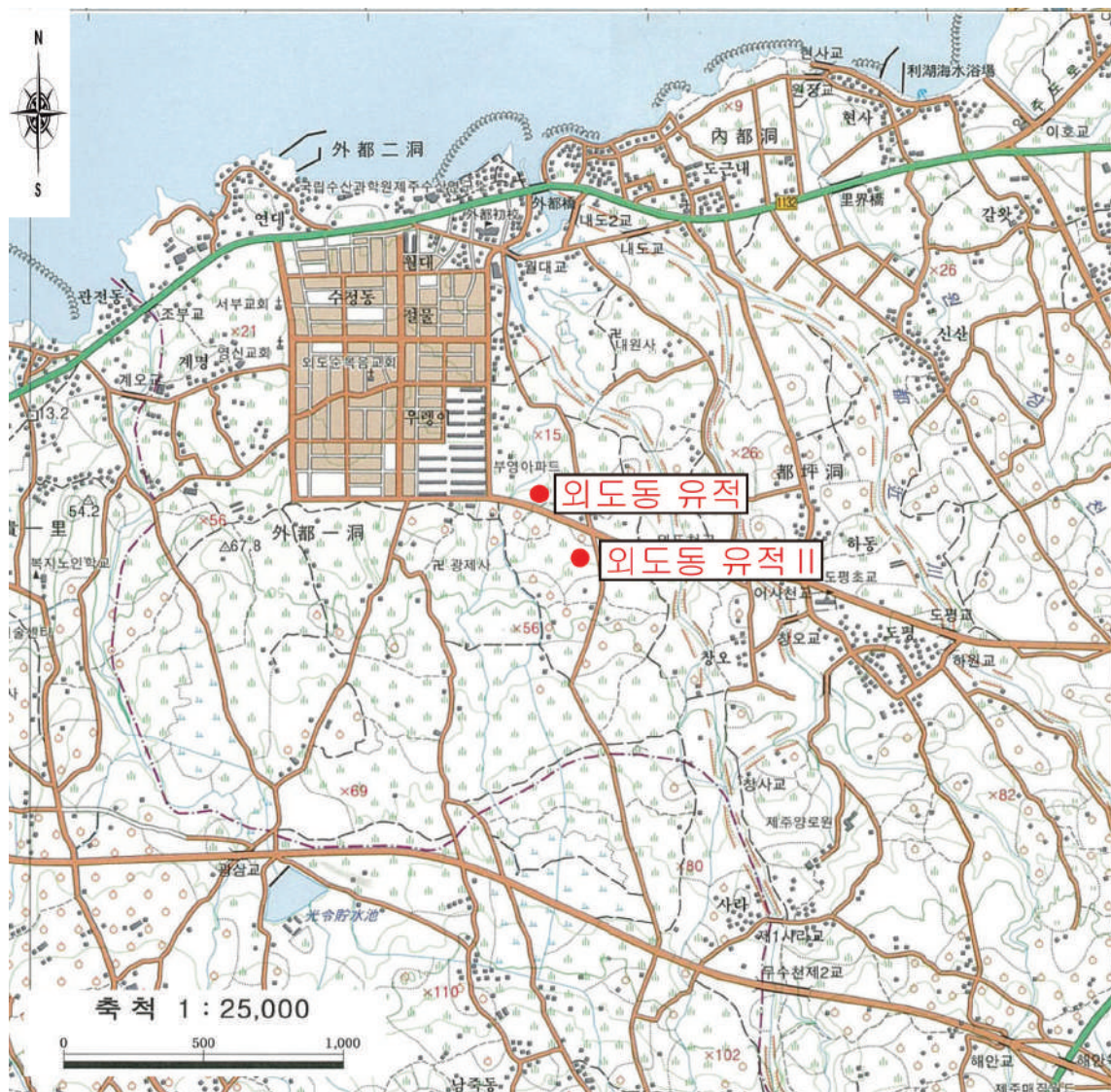


그림 1. 외도동 유적 I · II 위치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지도 참고)

가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상부 가장자리에서 중앙부로 경사를 이루며 1개체분의 적갈색경질토기편과 소형토기, 소량의 회청색경질토기, 뚜껑편 등이 출토되었다.

2.3. 외도동유적 I, I-3구역 18호 우물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39cm, 단축 118cm, 깊이 88cm이다. 단면은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상광하협형의 형태로 축조되었고 굴광벽을 따라 일부 적석렬이 둘러져있다. 석렬은 길이 25cm내외, 폭 15~20cm 내외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하부에서 상부로 쌓아 올려 축조하였다. 석렬을 쌓아 올린 후 석렬을 쌓아 올린 후 석렬 보강을 위해 흑갈색점토가 충전



외토동 유적 발굴지

되었고 동벽을 제외한 대부분은 충진토만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최상부에는 전체적으로 2~3단의 석렬이 수혈의 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져 있다. 바닥은 암반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간의 경사를 이루었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함유된 흑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대부분 적갈색경질토기편이며 소량의 회청색경질토기가 출토되었다.

2.4. 외도동유적 I, II-1구역 1호 우물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74cm, 단축 146cm이다. 내벽의 직경은 80cm, 깊이는 142cm이다. 굴광의 형태는 상광하협인 형태이나 내부 벽석 축조상태를 볼 때 거의 수직으로 굴착한 것으로 보인다. 바닥면에는 지름 40~60cm가량의 대형 현무암제 자연석을 이용하여 벽을 돌렸다. 벽석의 축조는 하단에서는 비교적 대형의 석재를 이용하였고, 중간부분과 상부로 올라오면서는 중·소형의 자연석을 이용하였다. 벽석의 쌓음 방식은 장방형의 서재를 횡으로 쌓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장방형의 석재 사이사이에 소형의 석재를 세로방향으로 끼워 넣어 모서리의 각을 줄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이며 직경 약 20~30cm가량의 자연석과 함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된 흑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5. 외도동유적 I, II-1구역 5호 우물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94cm, 단축 178cm, 깊이 146cm이다. 굴광은 상광하협의 형태로 굴착하여 수혈바닥의 직경이 66cm로 상부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벽석은 주로 현무암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일부 천석과 화강암도 이용하였다. 벽석 사이에는 벽석을 보강하기 위해 흑갈색점토에 토기를 섞어 충진하였다. 벽석은 11단 정도가 확인되는데 하부에서 4단 높이까지는 판석형의 돌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내부퇴적토는 대략 4개의 층위로 나뉜다. 1층은 소량의 사질과 소토 및 목탄이 혼입된 흑색점토층이다. 2층은 잡석 및 유물포함층으로 남에서 북으로 경사져 있다. 3층은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는 니질성의 흑색점토층으로 큰 괴석이 깔려 있다. 4층은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는 니질성의 흑색점토층이다. 바닥면에는 전체적으로 가공된 여러매의 목판이 깔려 있으며 목판과 목판 사이에는 황색 점토가 충진되어 있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가 대부분이며 회색경질토기, 파수부토기,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2.6. 외도동유적 I, II-1구역 9호 우물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22cm, 단축 110cm, 깊이 82cm이다. 벽선은 대체로 수직으로 파들어 갔으나 상광하협의 형태로 굴착하였다. 서북벽은 바닥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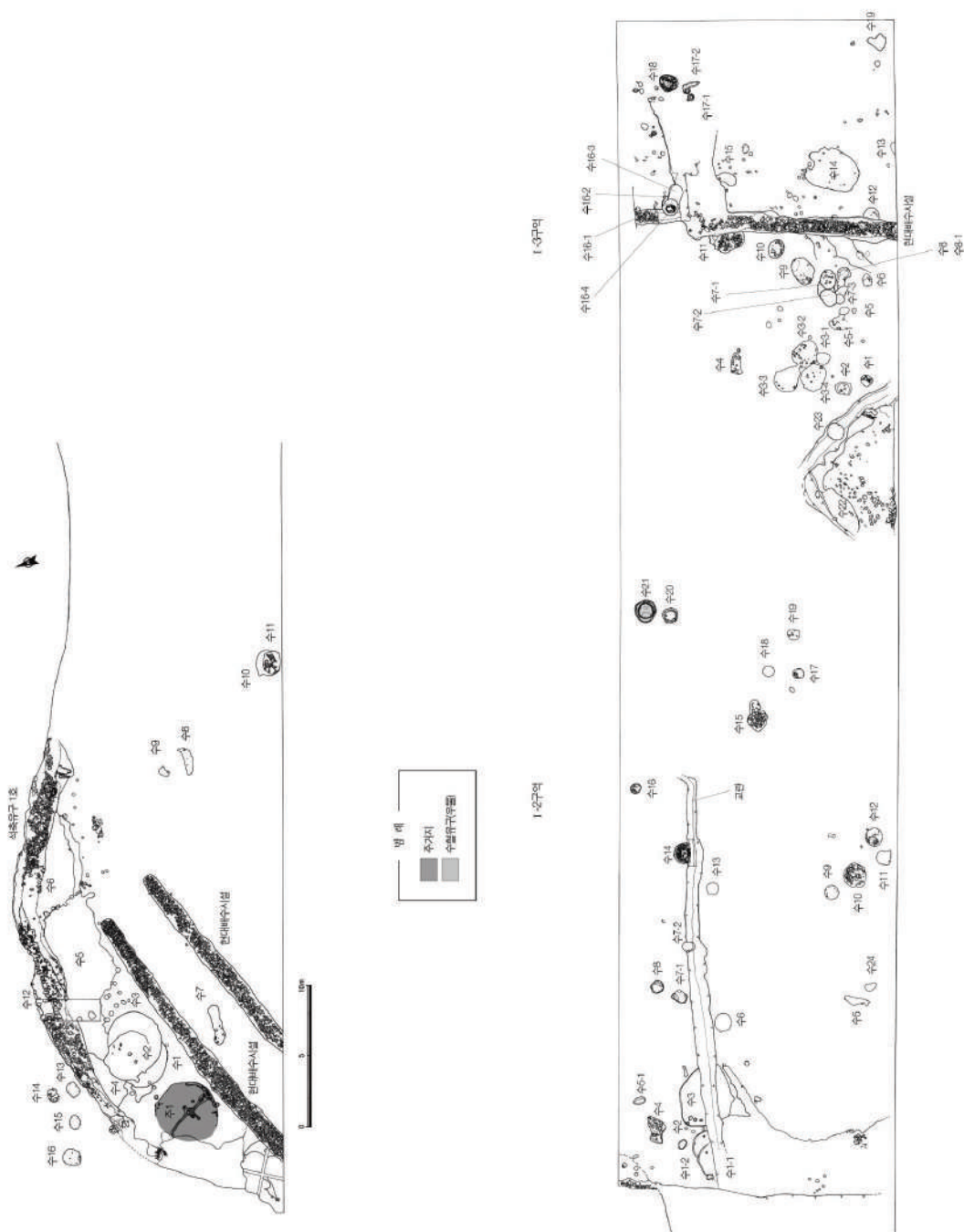


그림 2. 외도동 유적 I 구역 유구 배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보고서 참조)

지는 형태이다. 수혈 벽체에는 크고 작은 굴지흔이 확인되는데, 특히 서벽에는 40cm 내외의 굴지흔이 확인된다. 나무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바닥에는 니질점토층에서 목재가 출토되고 있는데, 수혈벽에 결구되었던 목재일 가능성과 우물의 뚜껑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내부퇴적토 4층인 니질성 점토층에서 반파된 파수부토기편과 곡옥 1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우물의 폐기과정에서 의식적으로 퇴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7. 외도동유적 I, II-2구역 4-1호 우물(지)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42cm, 단축 106cm, 깊이 92cm이다. 적석상태는 대부분이 종평적¹⁾이며, 일부 횡평적을 이용하였다. 벽석 사이에는 암갈색사질점토와 잔자갈을 채웠다. 유구의 내부에는 다량의 천석이 거의 평탄한 형태를 이루며 겹겹이 폐기된 상태이다.

내부퇴적토는 목탄이 다량으로 혼입된 흑갈색 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구의 바닥은 풍화 암반층의 암반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가 출토되었다.

2.8. 외도동유적 I, II-2구역 4-2호 우물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07cm, 단축 101cm, 깊이 80cm이다. 수혈은 상광하협식으로 굴착되었다. 돌을 사용하지 않고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바로 벽면으로 이용하였다.

내부퇴적토는 4개의 층으로 토층의 퇴적방향은 남쪽에서 북쪽면으로 이루어졌다. 유물은 바닥면의 남서쪽 벽에 붙어 적갈색파수토기 1점이 완형으로 출토되었는데, 물을 취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토기로 보인다. 이외에 소량의 적갈색경질토기편, 파수부토기의 북쪽으로 약 10cm가량 떨어져 원관형토제품 1점이 출토되었다.

2.9. 외도동유적 I, II-2구역 6-1호 우물

평면형태는 북쪽의 일부가 돌출된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208cm, 단축 188cm, 깊이 97cm이다. 우물의 상부에서는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자연석과 천석이 혼재되어 'U' 자형으로 폐기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단면형태는 상부에서는 넓고 20~30cm 하강 후 단이 지며 거의 수직상으로 굴광된 상광하협형태이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과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토제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1) 종평적은 장방향의 석재를 세로로 쌓는 것을 말하며, 횡평적은 장방향의 석재를 가로로 쌓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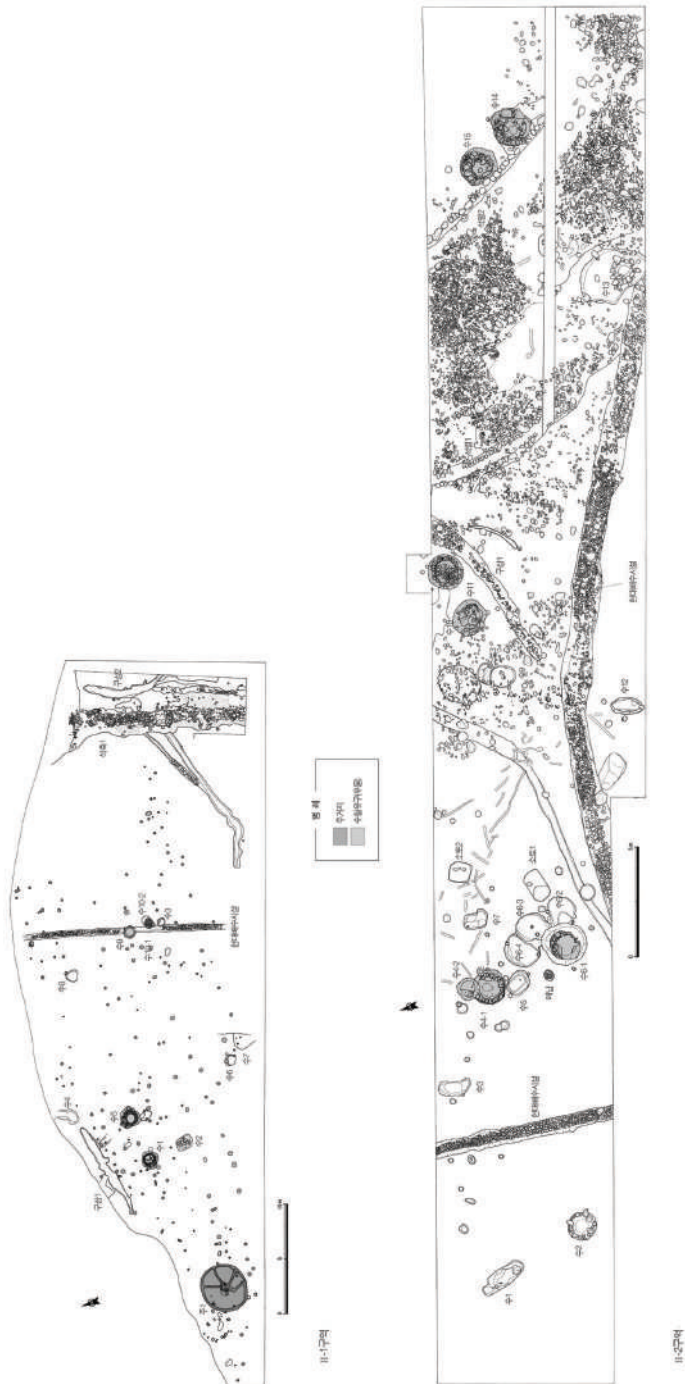


그림 3. 외도동 유적 II구역 유구 배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보고서 참조)

2.10. 외도동유적 I, II-2구역 10호 우물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운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61cm, 단축 152cm, 깊이 72cm이다. 굴광은 완만한 상광하협 형태를 띠고 있다.

바닥면에는 얇지만 니질층이 일부 퇴적되었으며,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과 원판형토제품, 석기류는 공이와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2.11. 외도동유적 I, II-2구역 11호 우물(지)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장축 166cm, 단축 154cm, 깊이 80cm이다. 수혈은 상광하협식으로 굴광되어 있으며 자연석과 소량의 토기편을 이용하여 벽면을 축조하였다. 벽석과 벽면사이에는 암갈색사질점토와 토기편, 자갈 등을 이용하여 충진시켰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종편적과 횡편적을 혼용하였는데 모서리를 죽이는 부분에는 종편적이, 완만한 각도에서는 횡편적을 사용하였다. 하단은 풍화암반층을 벽면으로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바닥에서 구연부가 우물의 바닥면을 바라보며 거꾸로 누어진 대형의 적갈색경질토기가 1점이 출토되었다.

2.12. 외도동유적 I, II-2구역 14호 우물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82, 단축 170cm, 깊이 105cm이다. 벽석의 내면을 중심으로 한 규모는 상단지름 100cm, 하단지름 85cm이다. 수혈은 상광하협으로 굴착하였으며 남벽을 제외한 세 방향으로서는 천석을 사용하여 약 3~4단 가량 종편적과 횡편적으로 쌓았다. 천석을 이용한 벽석 하단으로는 풍화암반층을 벽면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풍화암반층에 포획되어 있는 천석을 벽석의 대용으로 사용한 흔적도 확인된다.

내부퇴적토는 생토층인 풍화암반층을 포함하여 4개로 나누어진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과 회색연질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13. 외도동유적 I, II-2구역 15호 우물(지)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69cm, 단축 162cm, 깊이 116cm이다. 벽석의 내면을 중심으로 한 규모는 상단지름 100cm, 하단지름 74cm이다. 수혈은 상광하협으로 굴착하였으며 서벽과 남벽을 제외한 두 방향으로서는 천석과 현무암제 자연석을 사용하여 약 5~6단 가량 종편적과 횡편적으로 쌓아 벽을 축조하였다. 남쪽과 서쪽 벽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퇴적토 생토층인 풍화암반층을 포함하여 4개로 나누어진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과 회색연질토기, 원판형토품 등이 출토되었다.

〈표1〉 외도동유적 우물 일람표

연 번	구역	호 수	평면 형태	규모(cm)			출토유물	형태
				장	단	깊이		
1	I -2	14	원형	150	(잔) 124	89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원판형토제품, 지석	일부 결실 천석+자연석조
2	I -2	21	원형	168	154	100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갈돌	자연석조 2단토광
3	I -3	18	타원형	139	118	88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자연석조
4	II-1	1	원형	174	146	142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원판형토제품, 갈돌, 갈판	천석+자연석조
5	II-1	5	원형	194	178	146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 기, 회청색경질토기, 원판형토 제품, 갈판	천석+자연석조
6	II-1	9	원형	122	110	82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 기, 토제방추차, 곡옥	일부결실 목조우물
7	II-2	4-1	원형	142	(잔) 106	92	적갈색경질토기	선축 천석조
8	II-2	4-2	원형	107	101	80	적갈색경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원판형토제품	후축 토벽조
9	II-2	6-1	원형	208	188	97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토제방추차, 갈판	천석+자연석조
10	II-2	10	원형	161	152	72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원판형토제품, 공이석기, 갈판	천석+자연석조
11	II-2	11	원형	166	154	80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자연석조
12	II-2	14	원형	182	170	105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 기, 회청색경질토기,	천석조
13	II-2	15	원형	169	162	116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원판형토제품, 갈판	천석+자연석조

2.14. 외도동유적Ⅱ, 3호 우물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24cm, 단축 118cm, 깊이 107cm이다. 남동편과 북서편 외곽에 각기 1기의 기둥구멍이 배치되어 있는 우물이다. 벽체는 생토를 30cm 정도 수직으로 굴착한 후 다시 서벽의 암반을 피해 내부에서 동편에 치우쳐서 직경 50cm 정도의 규모로 상광하협으로 굴착한 후 15~30cm 정도 크기의 천석과 자연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4~5단 쌓았다. 바닥은 생토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석의 상층부에는 대형 토기편과 천석, 자연석이 뒤섞여 수평으로 두껍게 깔려 있고 벽체에는 중앙부로 경사지게 생토와 비슷한 황갈색 점토가 퇴적되었다. 인위적인 폐기흔이 확인된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을 비롯하여 갈판, 흙돌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2.15. 외도동유적Ⅱ, 26호 우물(지)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65cm, 깊이 172cm이다. 우물의 축조는 먼저 상광하협으로 수혈을 굴착한 후 바닥은 약간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바닥에는 대형토기의 구연부와 동체부편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한 후, 그 상부에 판석 4매를 이용하여 중앙부를 향하여 약간 경사지게 설치하였다. 다시 판석의 상부로 할석을 쌓아올려 축조하고 있다. 우물의 폐기는 우선 중앙부의 벽면을 따라 둘러진 할석을 무너뜨려 유구 내부로 채워넣은 후 재와 목탄, 다량의 토기편을 유구의 내부로 퇴적시켰다. 토기편과 재+목탄층을 유구의 중간부분까지 퇴적시킨 후, 다시 황갈색점토를 이용하여 상당히 두껍게 내부를 채워 폐기를 마무리하였다. 단면을 보았을 때 내부 적석이 퇴적된 부분까지는 약간 오목하기는 하나 거의 수평 층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부의 토기편+목탄+재층과 황갈색점토층은 유구의 중앙부를 향하여 오목하게 퇴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닥면 노출과정에서 바닥판석 하부에서 복숭아씨앗과 동물뼈가 확인되었다. 유구의 축조과정에서 일련의 의식행위가 이루어진 흔적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다량의 적갈색경질토기편과, 원판형토제품, 회색연질토기편과 골편, 씨앗 등의 자연유물이 출토되었다.

2.16. 외도동유적Ⅱ, 29호 우물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70cm, 단축 163cm, 깊이 127cm이다. 동벽은 지표하 약 20~30cm까지 10~20cm 크기의 괴석과 천석으로 된 벽석이 확인되었다. 그 외의 부분은 깊이 90cm까지 일부는 폐기 과정에서 유구 내부로 끌려 들어가고 일부는 유구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상층부의 벽석 외에 바닥에서 2단 정도 20~40cm 크기의 천석과 괴석으로 된 벽석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축조 형태는 바닥을 벽에서 중앙부로 경사지게 굴착한 후 중앙부에 30~50cm 정도의 천석을 경사면을 이용하여 바닥에 깔 후에 벽석을 상광하협의 형태로 쌓아 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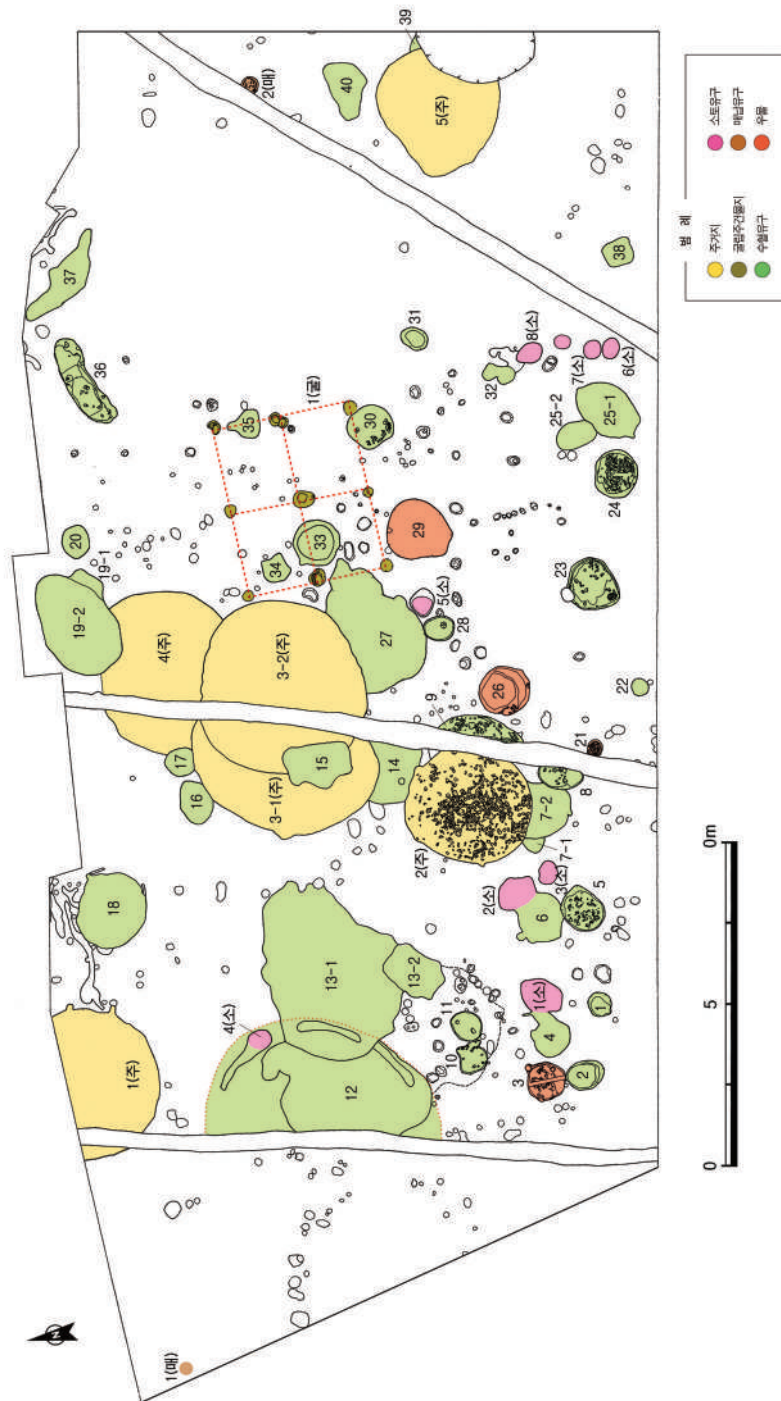


그림 4. 외도동 유적 II구역 유구 배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보고서참조)

것으로 판단된다. 벽석 내부에는 상층부에서 무너져 내린 벽석들과 토기편이 다량 채워졌다. 유물은 다량의 적갈색경질토기편과 회색연질토기 편 등이 출토되었다.

〈표2〉 제주 외도동 유적 II 우물 일람표

연 번	호 수	평면 형태	규모(cm)			출토유물	형태
			장	단	깊이		
1	3	원형	124	118	107	적갈색경질토기, 갈판, 흙돌, 용도미상석기	천석+자연석조
2	26	원형	165		172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원판형토제품, 토제방추차, 갈판, 꿀편, 씨앗	천석조
3	29	원형	170	163	127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원판형토제품, 갈판,	천석+자연석조

3. 외도동 유적 우물의 형태와 축조방식

우물의 구성은 크게 지상부분과 지하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지상부분은 난간과 덮개 그리고 지붕으로 구성되며, 지하부분은 충진토와 벽, 바닥으로 구성된다. 벽은 벽면의 붕괴를 막고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며, 충진토는 벽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며, 바닥시설은 지하수의 유입과 물의 정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다.

지상부분인 덮개나 지붕은 우수나 기타 오물이 우물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을 말하며 조사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외도동유적의 우물은 벽시설의 재료에 의해 석조(석재를 이용한 우물), 목조(나무를 이용한 우물), 토기조(토기편을 이용한 우물)로 구분할 수 있다. 돌로 쌓아올린 우물은 만들기는 어려우나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고, 나무로 만든 경우는 쉽게 썩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외도동 유적에서 확인된 우물은 석조 15기, 목조 1기로 석조 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내구성이 강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석조우물의 축조가 일반화 된 것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장기간 머물렀던 정주취락임을 보여준다.

석조우물의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 방형, 팔각(다각)으로 구분한다. 외도동 유적에서 확인된 우물은 원형 13기, 타원형 2기, 방형 1기로 원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물의 축조과정에서 방형보다는 원형으로 축조하는 것이 쉽고 빨리 만들 수 있으며, 돌이 서로 맞물림으로서 견고성이 높은 원형을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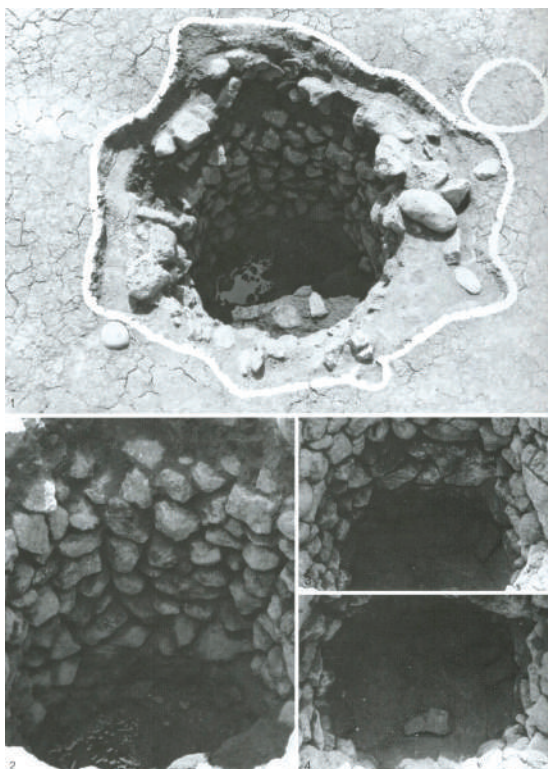


그림 5. 외도동 유적 II-1구역 1호 석조 우물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보고서참조)



그림 6. 외도동 유적 II 26호 석조 우물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보고서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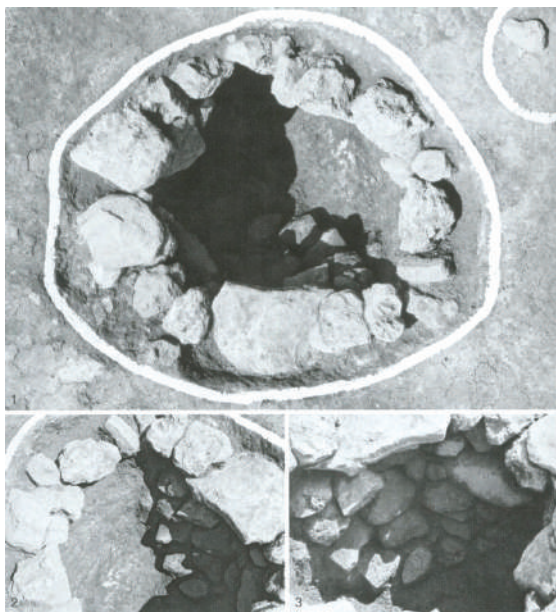


그림 7. 외도동 유적 I-3 18호 우물 원형 평면형태 모습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보고서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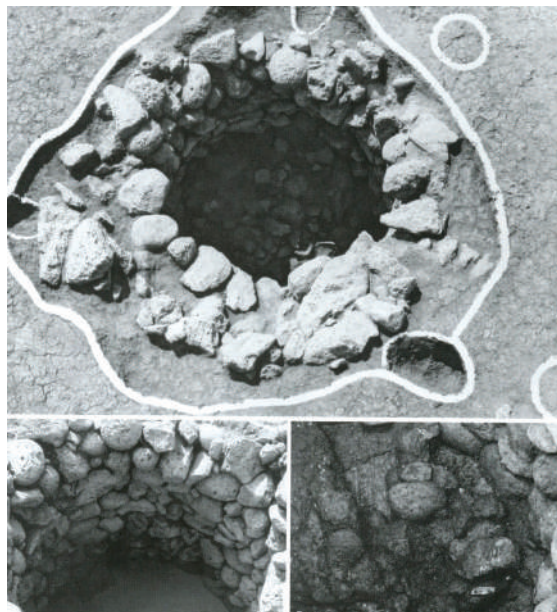


그림 8. 외도동 유적 II-1구역 5호 우물 원형 평면형태 모습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보고서참조)

우물의 단면은 크게 상광하협(上廣下狹)과 통형(筒形)으로 구분된다. 상광하협은 상부를 넓게 파고 아래로 내려 갈수록 좁게 된 형태이며, 통형은 상려뿔하부의 지름이 거의 같은 형태이다. 그 외 단형(段形), Y자형, U자형 등으로 구분된다. 외도동 유적에서 확인된 우물의 수는 상광하협 12기, 통형 1기, 단형 3기로 상광하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물의 축조과정에서 평면 형태를 좀 더 쉽게 축조하려는 의도와 석축축조의 기술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단면상으로 들여쥘기 보다는 단지모양으로 굴곡을 줌으로서 토압을 더 넓은 면적에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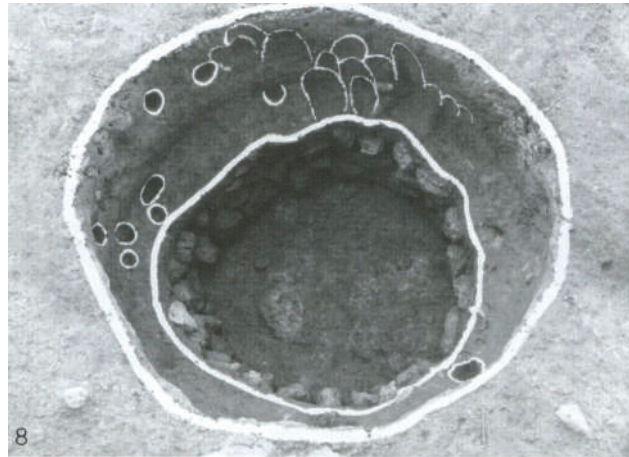


그림 9. 외도동 유적 I-2구역 14호 우물 상광하협 단면모습(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보고서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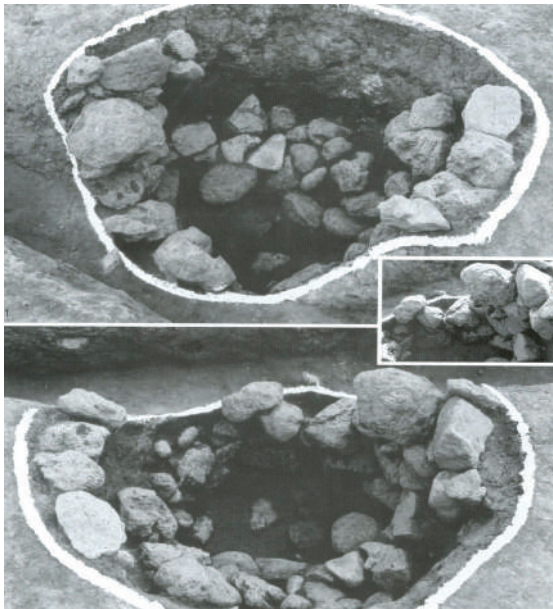


그림 10. 외도동 유적 I-2 14호 우물 상광하협 단면모습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보고서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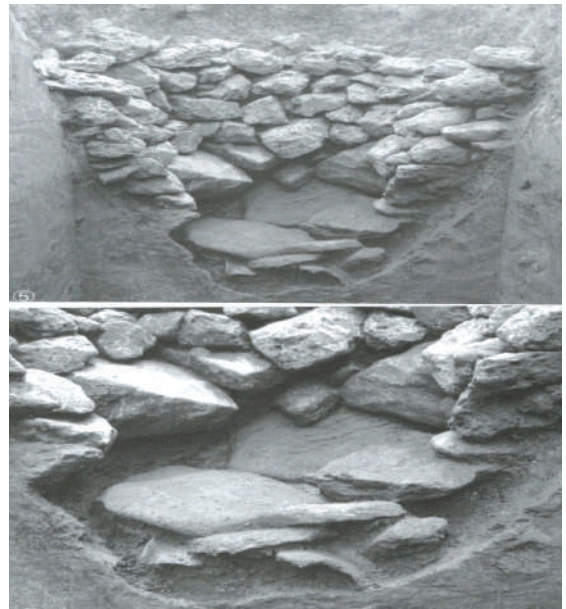


그림 11. 외도동 유적 II 26호 우물 상광하협 단면모습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보고서참조)

4. 우물에서 출토된 유물

우물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우물의 이용 또는 폐기시점과 관련이 있다. 우물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석기류, 토제품 등이 있다. 토기류는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가 출토되었다. 적갈색경질토기는 우물(지) 16기에서 모두 출토되나, 회색연질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는 일부 우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우물 축조의 시기와 이용방법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적갈색경질토기에 비해 회색연질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는 적갈색경질토기와 거의 동시기에 사용된 것이나,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있으며, 또한 무계면에서 회색연질 및 회청색경질토기가 훨씬 가벼워 물을 뜨거나 운반 등 이동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토기편 외에 갈돌, 갈판, 지석, 곡옥 등의 석기류도 공반출토되며, 원판형토제품과 토제방추차가 우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출토되는 예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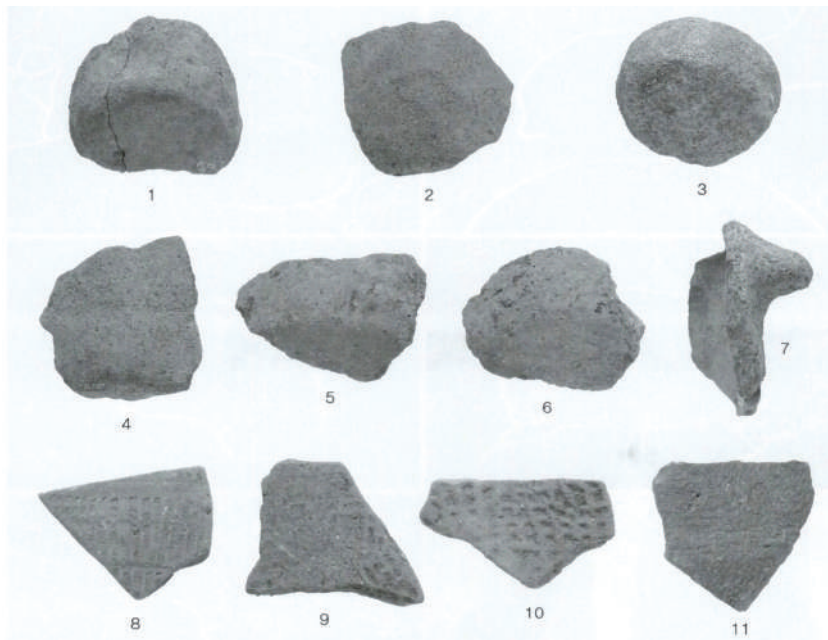


그림 12. 외도동 유적 II-1구역 6-1호 우물(지) 출토 토기류(제주문화예술훈재단, 2005, 보고서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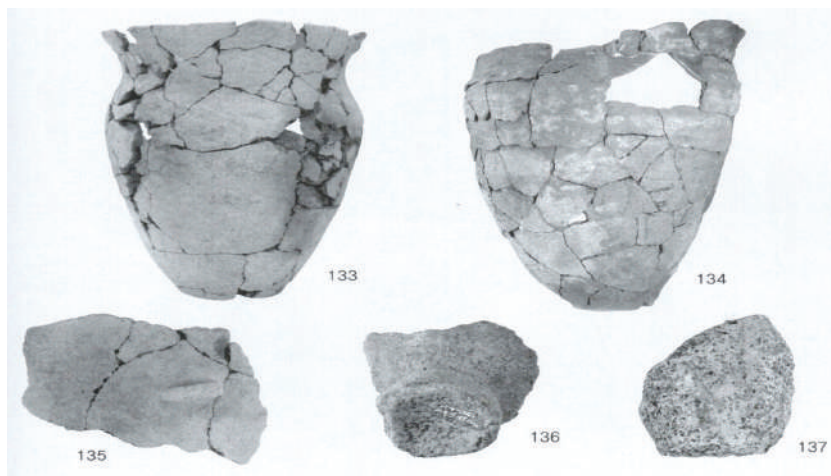


그림 13. 외도동 유적 II 3호 우물(지) 출토 토기류(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보고서참조)



그림 14. 외도동 유적 II-2구역 10호 우물(지) 출토 토기류(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보고서참조)



그림 15. 외도동 유적 II-2구역 우물(지) 출토 토제품(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보고서참조)

5. 맺음말

이상에서 광령천 하류에 위치한 외도동유적의 우물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주변의 풍부한 용수조건에도 불구하고 외도동유적 집단이 다수의 우물을 축조하여 사용한 점은 우물과 같이 확인되는 변형송국리형 주거지와 더불어 외도동유적 집단의 생활수준과 건축기술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우물의 축조방식에서 구덩이를 파고 그 내부에 천석과 할석을 적당히 배분하여 엇쌓기와 겹쌓기, 종평적과 횡평적으로 벽을 돌려 축조하는 형태는 현대의 기술과 맞먹는 수준으로 상당한 건축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다. 또한 외도동유적 주거지는 원형수혈주거지로 중앙부에 원형의 집수구를 두고, 주거지의 가장자리에서 집수구 방향으로 수로를 내어 집안의 물 고임을 방지하는 형태와 주거지 중앙부에 대형토기를 안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방사상의 자갈한 조약돌을 채워 난방을 하였던, 요즘의 온돌과 같은 난방시설을 축조하였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준다.

현재 제주도 우물에 대한 연구는 조사 예가 많지 않지만 최근 외도동유적에 대한 추가 조사와 용담동일대 유적조사에서 다수의 우물이 발견되고 있어, 향후 우물 상부시설물의 형태, 우물 간 선후관계, 우물의 형태별 이용방법, 우물과 주변유구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제주도 취락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구미래, 2002, 「우물의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 『비교민속학』 제23집, 비교민속학회
- 권오용, 2008,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풍납토성 경당지구 206호 유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2호, 역사문화학회
- 권태호, 2005, 「‘우물’의 민속, 그 신화적 상징과 의미」, 『생활민물연구』 제16호, 국립민속박물관
- 김창익, 김대덕, 도영아, 2008, 「우물유구에 대한 분석과 조사방법」, 『야외고고학』 제5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이신효, 2002, 「와궁리 우물유적」, 『湖南考古學報』 15집, 호남고고학회
- 이신효, 2004, 「백제우물연구」, 『湖南考古學報』 20집, 호남고고학회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신제주~외도간 도로개설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제주시 외도동 성지요양원 신축공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